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내년 1월 실업급여 상향

(생활)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시행예정이었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상향조정을 내년 1월부터 3개월 앞당겨 실시키로 11월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고, 1일 최저 실업급여액도 8,960원에서 11,520원으로 인상된다.

해외유학 완전 자율화

(교육) 내년부터 자비 해외유학이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11월30일 자비유학 규제조항을 철폐,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은 만25세, 대학원 석사과정은 만27세, 박사과정은 만28세가 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분묘 60년 지나면 화장 · 납골

(장묘)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월29일 앞으로는 분묘를 최대 60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해 묘를 없애도록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르면 내년말 또는 2001년초부터 적용된다.

금융상품 인터넷 안내

(금융)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 적립기간 등 특징을 자세히 정리해 놓은 이 사이트(www.bittbank.co.kr)는 은행, 신용금고, 증권회사별로 예금상품이 분류돼 있다. '목돈 굴리기' 코너에서는 원금과 적립기간을 입력하면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女공무원 매일 1시간 '육아'

(보건)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유아가 만 한살이 될 때까지 매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갖게 된다. 정부는 11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성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한 달에 하루씩 쉬는 여성보건휴가를 주도록 했다.

혈액검사로 암 진단

(건강) 간단한 혈액검사 후 서너 시간 안에 위암 간암 폐암 등 7종류의 암 발병여부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암진단 키트'가 국내 제약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미약품은 암환자 680명과 정상인 288명의 혈액을 감사한 결과 82.5%~94.7%의 암 진단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전자 조작식품 善이나 惡이나

"과학적 산물" "환경재앙 가능성" 의견 팽팽

세계적으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 인류는 92년부터 21세기 식량대안으로 유전자를 조작시킨 식품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해성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지구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유전자 조작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지만 '해롭지 않다'는 연구결과 역시 없는 형편이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각종 연구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적인 다양한 형질이 없어지는 등 환경재앙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불교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류의 생존이 우선인가 아니면 환경의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미묘한 문제가 교차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구경〉에 "사람이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자연스런 순환의 이치를 말하는 윤회설에도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김용운 박사(한양대 명예교수)는 "자연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며 "이것은 결국 연기합으로써 인간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유전자 조작식품은 불교사상에 어긋난 과학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기독교가 생명논리를 창조주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불교는 교리 어디에도 자연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말라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 조작식품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호진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불교에서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유전공학을 통한 식량개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며, 따라서 교리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인간생명의 존귀함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김용운 박사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개발은 자비행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호진스님은 "인체나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줄여야만 개발목적의 본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무게중심은 서로 다르지만 상반되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자 서로 연기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볼 때 '인간중심'은 곧 '자연중심'이고 '자연중심'은 곧 '인간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유전자 조작식품 문제는 동전의 양면 중 어느 쪽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불살생(不殺生)'을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 '일체 생명의 가치가 제한없이 발휘되는 세계를 이루리라'는 적극적인 발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과학사상〉의 김용정 편집장(동국대 명예교수)은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교리의 재해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담배예절 바르게… '한국 담배소비자연맹 예절바른 담배문화 운동본부' 회원 200여명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거리에서 '담배를 예절있게 피우고 깨끗하게 버리자'는 '클린 스모킹' 캠페인을 벌였다.

새천년 맞이 지구촌 행사 풍성

새 천년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새 천년 맞이 행사에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밀레니엄 행사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담게 된다.

△평화의 날=2000년 1월1일 0시를 기해 세계 곳곳에서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1분간 자신의 종교에 따라 기도나 명상을 하며 평화를 기원하자는 행사.

△100만개의 풍선=2000년 1월1일 0시를 기해 세계 각국에서 100만개의 풍선을 누군가에게 동시에 날리는 행사.

△팀워크 2000=지구촌 식구들이 동시에 같은 행동이나 놀이를 하며 밀레니엄을 축하한다.

△평화의 릴레이 2000=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70여개국의 참가자들이 '평화의 횃불'을 이어받아 지구촌을 도는 행사.

△밀레니엄 프로젝트=1999년 12월31일 정오부터 2000년 1월1일 정오까지 24시간동안 각국에서 밀레니엄 전야와 첫날을 보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자는 취지.

주부 3명중 1명 "로비경험 있다"

기혼여성 6백명 설문

'남편을 위해서라면 로비도 내조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주부 3명중 1명이 남편의 직장 상사 등에게 '로비성 선물'을 한 적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11월20일부터 5일간 문화센터 수강생인 수도권지역의 30~50대 기혼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르비 관련 의식 및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응답 주부의 39.1%가 '로비가 마땅히 해야 할 내조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이는 최근 국가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옷로비의혹 사건과 같은 '로비 문화'가 특권층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함을 더해준다.

로비 횟수로는 6~7회(30.8%)가 가장 많았고 8~9회(24.7%), 3회이하(19.1%), 4~5회(16.1%)순이었다. 로비대상은 70.2%가 '상사의 아내'를 꼽아 옷로비 의혹의 로비형태가 일반적 경향임을 보여줬다.

시론

분노하여 날자

성낙주 〈소설가〉

한 세기가 멀어지고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희망으로 맞이하려는 움직임들로 온통 부산스럽다. 그러나 이렇게 요란만 떨어도 되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눈으로 지난 세기를 반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내딛는 우리의 보폭이 결정될 터이기 때문이다.

돌아볼 것도 없이 지난 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연대기는 격동과 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제국주의 물결에 침몰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단으로 인한 동족상잔과 소모적인 대립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반민주의 기나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도 채 몇 년 되지 않은 가까운 일이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화니 개방이니 하는 혼돈에 가득 찬, 또 다른 천 년이 밀어닥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옳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과제물이 속속 쌓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얼마 전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일제에 의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 현재형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의 모든 기록과 전시물들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뚝 멈춰 서 있었다. 해방 이후 반세기 가량이나 이 땅을 휩쓴 독재와 폭력과 야만의 흔적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손에 의해 저질러진 반민주와 인간부정이라는 악업의 증발. 그것은 또 다른 역사 왜곡이며, 증거 인멸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정직한 분노는 세상을 바로잡는 힘의 원동력이다"

〈장자(莊子)〉 첫머리에 붕(鵬)이란 새가 나온다. 북극 바다에 산다는 곤(鯤)이란 물고기가 새로 변신하면 곧 붕이 된다는데, 등의 길이가 무려 수천 리에 이르고, 북극과 남극을 자유자재로 오간다는 이야기이다. 그 새가 남극 바다로 옮아 갈 적에는 물결을 쳐서 삼천 리나 튀게 하고, 빙빙 돌며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나 올라가며, 반년을 날아야 쉬게 된다는 것이다.

헌데 그 새가 날아오를 때의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노이비(怒而飛)--. 흔히 '떨치고 날아오르면'으로 풀이되지만, 글자 그대로는 '분노하여 날아간다'이다. 그렇다. 분노를 모르는 새라면 남극과 북극을 오가기는 커녕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굼벵이나 잡아먹는 삶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는 인간의 삶, 혹은 역사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에 분노하지 않는, 또는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는 개인에게 발전적인 삶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젊은 학자가 기왕에 축적되어 있는 선학들의 연구에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의 학문 인생은 평생 선학들이 남겨놓은 자구에 토나 달고 주석이나 붙이는 것으로 마감할 것이다.

한 사회, 또는 한 민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 민족의 구성원들이 현실에 대해 진정한 분노를 갖지 않을 때, 그들이 꾸려내는 역사란 죽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절, 습관처럼 독재자를 비호해온 불교계 일각의 행위는 결코 여법하다고 말하기 곤란하다.(아울러 우리를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종권 다툼도 우리가 눈감을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다) 가치판단이 사라진 자비는 힘에 대한 굴종, 혹은 진실의 굴절일 뿐이다. 물론 불가에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란 말로 묶어 가장 경계한다. 그러나 대의를 위한 분심(憤心)과 사사로운 분노는 구별해야 한다. 붓다의 자비 한켠에는 세상의 미망과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분심이 자리잡고 있다.

아직 우리는 어설픈 자비나 용서, 관용을 펼쳐들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분심(大憤心)을 잡아 일으켜야 할 때이다. 정직한 분노, 올바른 분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즉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원동력인 것이다.

분노하는 새만이 멀리 날아간다.

發願已歸命禮三寶「새천년 불국토」

2000年 新年特輯新聞 廣告案內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본지는 정성을 다해 2000년 신년특집신문을 꾸미고저 합니다.
모두가 무루 동참하시어 하나되는 불교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천년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새천년 신년축하 광고
규격및단가 : 5단 × 37cm - 80만원
5단 × 18cm - 40만원
5단 × 9cm - 20만원
7cm × 6cm - 10만원
제 작 일 : 99년 12월 24일(금)
제작면수 : 28면 합쇄
접수마감 : 99년 12월 18일(토)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737-8881 (대표)
02)732-1522 (직통)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http: //www.mahamall.co.kr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마련한 "현상공덕향 경품대잔치" 행사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운의 당첨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추첨일 : 1999년 12월 3일

아 래

■대상 (1명) : 금강산여행권
손파항 부산 연제구 연산9동
■1등 (1명) : 불교반지(18K)
김대곤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2등 (2명) : 고산다기
김인자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이종태 부산 금정구 회동동
■3등 (2명) : 와발우
천순기 부산 서구 서대신동
박혜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4등 (5명) : 수암 만다라 옥침
서정술 경북 고령군 쌍림면
이경숙 경기 포천군 창수면
권외자 부산 남구 대연6동
김연옥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상숙 부산 북구 만덕2동
■5등 (명상방석 42명)
최중기 서울 구로구 고척동
민다래 서울 은평구 신사동
박문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정우성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강수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윤기운 경기 화성군 남양면
표은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조현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전현자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최지원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김광식 경북 문경시 모전동
이성규 경남 마산시 어곡동
배홍록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박철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김응기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정용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경용 충남 천안시 성환읍
고경옥 강원 인제군 인제읍
김성은 경남 통영시 정량동
김성길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박정희 충남 보령시 청라면
한상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박금희 경기 군포시 금정동
한희영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
남숙녀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영분 부산 남구 문현1동
박순남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방덕순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경옥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우명주 부산 중구 동광동
이희준 경북 고령군 쌍림면
김홍길 부산 영도구 영선4가
이유진 서울 은평구 대조동
신영애 경북 청곡군 왜관읍
김명숙 부산 금정구 회동동
박향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이상훈 서울 광진구 자양1동
하동훈 서울 용산구 갈월동
오대숙 대구 달서구 진천동
최덕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부연 경기 구리시 인창동
정기문 강원 춘천시 효자동

상품 수령안내 해당되는 행운의 당첨자는 행사담당자에게 전화연락 바랍니다. 확인 후 상품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 경품 대잔치 담당자: 02)732-1522(직) 유지경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 //www.mahamall.co.kr